

# ‘청정 고흥산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000억 돌파

## 품질 개선·단가 상승·생산 기반 정비 등 효과 수출액도 22% 증가…“지역 수산업 지속 성장”

고흥군이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6년산 물김 위판액이 지난 10일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다. 향후 위판 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위판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흥군에서는 총 403어가가 1만714ha(10만7140㏊)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며 청정 고흥산 김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양식 초기 영양염 부족과 강우량 감소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물김 생산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개선과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위판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2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김 양식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품질 중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그동안 양식 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정비 등을 통해 김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고흥산 물김은 생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지 위판 단계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출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2024년 김 수출액은 4625만4000달러(1438t)였으며, 지난해는 5636만6000달러(1662t)로 늘어 수출액 기준 약 22% 증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000억원 달성은 김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수출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부표 보급, 김 종자 공급,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84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흥 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이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물김 위판 모습.

## 여수·순천·광양, 전남·광주 행정통합 공동 대응

### 공동 건의사항 3건 의결 동부권 상생균형발전 기대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행정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19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제4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남 동부권의 상생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건의 3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전남 동부권이 상대적 소외나 기능 축소가 아닌 남부권의 핵심 성장축이자 미래 산업 전환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철강·석유화학·항만·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3개 시가 뜻을 모았다.

의결된 공동건의 사항은 ‘전남 동부권 상생균형발전과 산업대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 근거의 특별법 반영, 전남광주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행정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3개 청사의 기능 분산 등 균형발전 체계 구축,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좌석 공급 확대 등 전남 동부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건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전남 동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3개 시의 공동 대응이다”며 “특별법과 하위법령 제정, 후속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 주도의 성장 성과가 전남 동부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 구들장 대화가 8개 읍·면 156개 마을 순회를 모두 마치고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 구례, 156개 마을 순회 ‘구들장 대화’ 마무리

### 군민 목소리 청취…현장 소통 행정 펼쳐

구례군은 8개 읍·면 156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구들장 대화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구들장 대화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군수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화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부터 지역 소멸 대응 방안까지 다양한 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마을회관 등 편안한 공간에서 이

루어진 대화를 통해 주민들은 격식 없이 생활 불편사항 등을 가감 없이 전했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부서별로 분류해 현장 확인 및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해당 군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구례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국립나주숲체원, 산림복지시설 자리매김

### 5년 간 방문객 18만7000명

개원 5년째를 맞는 국립나주숲체원이 호남권 대표 산림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에 따르면 개원 후 5년 동안 숲체원 방문객이 총 18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객은 호남 지역 주민이 76%로 가장 많이 방문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18%), 50대(17%), 30대(16%), 40대(15%), 20대(9%) 순으로 집계됐다.

국립나주숲체원은 청소년 산림생태 교육과 증진을 위한 시니어 웰라이프 사업으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꾸준히 방문해 주신 이용객 덕분에 국립나주숲체원이 성장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숲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 곡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 시민 편의 강화…전년비 두 단계 상승

곡성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보다 두 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민원 취약계층 보호 정책 추진 등이 점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과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및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해 군민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 어르신용 큰글씨 민원사무편

람 배포,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발급 등으로 시민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악성민원 대응 교육·훈련, 전화 접수 녹음 추진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목표로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관련 부서들과 회의 및 협의를 개최해 평가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곡성=김유변 기자 hnnews1@

## 장흥,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 사업비 5억…11월까지 31세대 공급 완료 목표

장흥군은 최근 장동면 진곡마을회관에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배경과 공사 일정, 세대별 설치 내용, 안전관리 방안,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각 세대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한다.

세대별 가스배관과 보일러, 가스안전장치 등을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LPG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전남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에 꾸준히 선정돼 현재까지 5개소 370세대에 배관

망을 구축했다.

올해는 전남도 공모 결과 장동면 진곡마을 31세대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5억1600만원이 투입되며, 향후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각 세대에 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 순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70만원…내달 13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남도가 협력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농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다.

단 2024년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와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4월 중 이월결 예정이며,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만큼 대상 농어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